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추진 경과 /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추진 경과

1. 서론

(김건상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100살을 훌쩍 넘어선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동부이촌동 그 자리에 새 집을 짓게 되었다. 어쩌다 이 중차대한 일에 관여해야 할 입장이 되면서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건축 관련 명언들을 찾아 읽어보았다. Winston Churchill의 “우리는 건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건축이 우리를 모양 지어간다.”는 것과 Yoshio Taniguchi의 “훌륭한 건축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는다. 부디 그 안에서 활동할 우리들이 돋보이게 되는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으면 하는 소망이 샘솟는다. 또 신축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회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 회관에 대하여 이런 저런 주문을 피력하는 걸 접하면서 그 모든 소망이 실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

새 회관이 이전의 회관 건립 사례들과 같이 회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지어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 건립하려는 이 회관이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질 가장 뚜렷한 유형의 상속물이며 또 후배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임으로, 가능하면 회원들께서 바라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부이촌동 건축 부지가 안고 있는 조건들이 우리의 소망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불가능한 엄연한 현실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중에도 실현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답을 찾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건축 추진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의협회관 변천사와 새로운 회관 건립

시도에 대한 소고

(안승정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창립 이후 자체 회관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대병원, 사회부 차관실, 보건부 의정국으로 옮겨 다니며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다 1955년 11월 12일 종로구 관훈동에 있는 구 의친왕궁을 회원들의 기부금 및 외부의 지원금으로 매입하면서 자체 회관을 마련하게 됐다. 관훈동 회관은 대의원 총회와 소규모 학술강연회를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세미나 및 축하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췄다.

관훈동 회관 매입은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1958년 6월 13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는 회관 매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회원 입회금으로 1만 5,000원을 징수하는 문제를 상정하여 격론을 벌인 끝에 입회비로 1만환을 징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훈동 회관은 1955년부터 1960년까지 단 5년간만 사용했다. 1960년 11월 7일 불의의 화재로 회관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 화재로 각종 서류와 비품, 문헌 등이 불타 버렸을 뿐만 아니라 1959년 4월부터 다시 발간한 협회지가 소실됐다.

관훈동 회관 화재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약사회관에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는 등 고충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1961년 1월 14일 관훈동 회관 대지를 매각하고, 3월 11일 중구 쌍림동에 위치한 4층 콘크리트 건물을 새 회관으로 매입했

다. 10월 13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는 쌍림동 회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1962년 5월 11일 쌍림동 회관을 3,000만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6월초 서울역전에 있는 구 세브란스병원에 임시 사무소를 마련했다. 이후 1963년 관철동 회관을 신축했다.

56평 대지 위에 145평으로 지어진 관철동 회관은 주한 미군사 원조 계획처(AFAK)로부터 기증받은 3,000달러에 상당하는 철근, 양회, 목재 등 건축 자재와 회원들의 성금 등 300여만 원이 투입되어 건축됐다.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의사협회의 영욕을 지켜본 동부이촌동 회관은 1969년 4월 제 21차 정기총회에서 신축을 의결하면서 태동됐다. 같은 해 4월 10일 회관건립전권위원회가 발족해 관철동 회관을 매도하고, 11월 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용산구 이촌동 302-75번지 541평을 1,900여만 원에 매입했다.

1970년 4월 8일 기공식에 이어 1971년 10월 30일 2층 내부공사를 마치고, 첫 사무실 이전이 이뤄졌

으니 실제로는 46년간 대한의사협회 회무공간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당시의 기록과 근무자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7층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공사비가 모자라 내장공사가 진전되지 않자 동아제약주식회사가 1,000만원, 한결부 당시 회장이 500만원, 권영범 전 재일본한인의사회장이 100만원이란 거금을 회사했다. 뿐만 아니라 말이 새 회관이지 허허벌판이던 지역에 골조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어서 흉물스러웠고 난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모닥불을 피워 지냈는가 하면, 주변에 식당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지하실에 솥을 걸어 놓고 밥 짓고 반찬을 만들어 점심을 때우기도 했다고 한다. 명주완, 한결부, 조동수 회장 등 3대에 걸쳐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회원들이 기꺼이 특별성금을 내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부이촌동 회관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가장 인접해 있

의협 회관 변천사



현재



관철동 회관 신축
(1963-69년)



쌍림동 (1961-62년)



1955년 11월 12일, 옛 의천왕궁

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지어질 2000년 당시 건설사 측에서 회관 부지 매각을 제안해 왔으나 당시 협회는 의약분업 등의 혼란스러운 정국이었어서 이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다. 이후 회관 부지 매각 및 신축에 대한 논의는 의협 집행부가 교체될 때 마다 이슈가 되어 여러 차례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29대 집행부는(주)메디컬센트레빌에 용역을 의뢰하여 회관 이전 및 건립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제35대 집행부는 회관 리모델링(안)을 검토하였고, 제36대 집행부는 부천시와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 조성 MOU>를 체결하였고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부지 입주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동부이촌동 회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의제도를 정착시켰고, 의료보험 도입과정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한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77년 이래 의료보험이라는 관치의료로 억압돼 왔던 의사사회가 2000년 의약분업과 의사파업을 통해 의권을 주장하는 등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낸 곳도 이곳이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국내외 피해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익단체를 넘어 국민에 봉사하는 공익단체로서 자리매김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책>,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발의> 등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리 어려웠던 시기에도 임직원과 회원들의 의지와 열망이 모여져 회관신축은 이어졌다. 새 회관도 이 같은 전통이 이어져 대한의사협회의 새 얼굴로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2017년 회관 신축사업의 개괄

3-1. 사업추진 조직과 추진 방향 (안양수 총무이사)

동부이촌동 회관은 2016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¹⁾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에 따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동부이촌동 회관 자리에 신축을 추진하고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곧바로 상임이사회 및 각 직역단체, 산하단체, 유관단체 및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장에는 前 대한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를 장을 위촉하였으며, 위원회 산하에 기금관리분과위원회 및 회관건축분과위원회를 두어 각각의 업무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회관신축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기금관리분과위원회는 김숙희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회관 신축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및 모금에 관한 사항 ▲회관신축 추진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회관건축분과위원회는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회관 신축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회관 신축에 따른 임시회관 이전에 관한 사항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른 오송 부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위원장단과 간사,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2017. 5. 24.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차례, 기금관리분과

1)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위원회 및 회관건축분과위원회는 각 7차례, 운영위원회는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숨가쁘게 회관신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무래도 신축회관은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성과 회원들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무를 추진하는 사무공간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이 협회를 방문했을 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3-2. 재원과 기금 모금 현황 (김숙희 기금관리분과위원장)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신축 소요예산으로 245억을 책정했다. 이중 25억 원은 회관이 신축되는 동안 약 2년간의 사무실 이전(임대료 등) 비용이고 실제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220억 원이다. 소요재원 충당계획을 살펴보면 의료정책연구소 이월 잉여금 등 내부적립금 총 1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회원들로부터 2년간 정액의 특별회비를 부과하여 45억 원의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 총100억 원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는 회관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용과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회원들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 회관건축기금이 모아져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원들의 특별회비와 기부금 모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서신을 통해 밝혔다. 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뿐이라도 아껴 협회의 얼굴인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진심이 통해서인지 2017년 5월 한광수 고문의 첫 기부를 시작으로 2017. 12. 21일 현재 136명의 개인 및 68개의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여 13억여 원의

기부 약정과 7억 4천 2백여만 원의 기부금 납부가 이루어졌다. 회관 신축에 벽돌 한 장이라도 없겠다는 회원들의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금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회관신축 사항 홍보 및 기부금 납부 독려를 위해 기금 모금 전문가의 특별 강의 청취, 대회원 설문조사, 대회원 서신문 발송, 퇴직 임직원 초청 기념행사, 회관신축 후원 감사의 밤, 캐치프레이즈 공모, 감사 연하장 발송, 각종 행사장 방문 및 홍보부스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발적 기금 납부자 중에는 각각 인상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다. 개인으로써 1억원이라고 하는 최고액을 쾌적하고서도 언론 노출을 극구 만류했던 최종욱 회원(관악이비인후과 원장), 최고령 기부자이신 한원주 회원(1926년생), 2대에서 3대에 걸친 가족 기부 회원(추무진, 김국기, 문영목, 강원봉 회원 등)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기금 모금을 시작하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13억여원이라는 약정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기부 행렬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회관 건축 추진 현황 (전철환 회관건축분과위원장)

회관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 되고 회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회관건축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회관건축분과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업무가 회관 건축 현상 설계 공모였다. 가능한 현대적이면서 의사단체의 상징이 될 수 있고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담아 2017. 7. 6. 회관 건축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 및 대한건축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품을 제출한 4개업체 중 1개의 업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에는 (주)아도스건축사사무소와 (주)이공일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응모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적인 외관을 갖춘 작품을 선정됐다. 신축 회관에는 총 88대 규모의 지하 주차시설과 460석 규모의 지하 대강당, 업무시설, (가칭)의학박물관, 카페테리아, 세미나 시설 및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인바, 지하 대강당에서는 회원 단체의 각종 행사를 치르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용산구청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2018년 상반기 중에 건축허가를 득해 착공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동부이촌동 회관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써 건물 내벽에 상당한 양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착공 이전에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한 석면 제거와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는 성공적으로 회관을 신축하여 의료계 미래를 짚어질 후배 의사 회원들을 비롯해 13만 회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4. 제언과 결언 (김건상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제 곧 첫 삽을 뜨게 될 대한의사협회의 신축 회관은 이 땅의 13만 의사의 위상이며 협회의 얼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관은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의사 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의 정서적인 보금자리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학과 의료 발전의 전진지기여야 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호와 이를 위한 의료정책이 완성되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회관을 짓는 일이 우리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

■ 기고

심하여 이루어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모범사례로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신축에서 나타나게 될 우리 회원의 협동과 합심의 경험이 우리 의협의 긍정적 DNA로 뿌리 내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

회의 장애를 밝게 해줄 바탕을 구축하고 또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완공의 그 순간까지 지금처럼 기부하고 격려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이 글을 여가서 줄이는 바이다.